

무주군 한우 전국 최고 수준 품질 입증 도내 1위

거세우 81.3%, 암소 43.1%가 1+ 등급 이상 기록…체계적인 한우 개량 정책 기반

‘무주 한우’가 ‘2025년 한우 도축 성적 분석 결과 1+ 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 62.4%로, 전국 최고 수준(전국 평균 54.5% 자료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 통계)’을 입증했다.

축종별로 보면 ‘거세우’ 81.3%, ‘암소’ 43.1%가 1+ 등급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무주군의 △체계적인 한우 개량 정책과 △농가 중심의 사양관리 기술 향상이 주력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무주군은 그동안 한우 등록 사업, 유전체분석, 수정란 이식 등 과학적 개량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농가 맞춤형 기술교육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

는 등 고급육 생산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은창 과장은 “민관이 함께 기울인 다양한 노력을 기반으로 무주 한우가 안정적인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라며 “무엇보다 소비자의 고급육 선호가 확대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무주 한우의 가치가 재조명됐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고품질 한우 개량과 안정적인 축산 경영 지원을 통해 우량 암소와 초우량 암소 확대를 통해 무주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에서는 208농가에

서 한우 7,953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한 해 평균 1,624두 정도가 식용으로 소비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급여사업’ 추진에 8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 1,180가구로 사업 홍보와 더불어 대상자 발굴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 대비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된 649만원으로, 그 증가 폭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김서주 기자

김제시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자 증가 속 안착해

이용자 늘며 플랫폼 종사자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

김제시는 플랫폼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11월 이동노동자 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한 달간 쉼터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쉼터 이용이 뚜렷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쉼터 개소 이후 초기 운영에 따른 현장 반응을 점검하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월 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플랫폼 종사자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를 토대로 평일을 포함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쉼터를 운영하는 등 이용 여건을 확대하며 운영 체계를 보완했고, 그 결과 쉼터가 지역 내 플랫폼 종사자의 휴식 공간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2월 한 달간 쉼터 이용자 수는 총 516명으로, 11월 144명 대비 3.6배 증가(372명 증가)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도 10명에서 32명으로 약 220% 증가해, 쉼터가 플랫폼 종사자들의 일상적인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모바일 출입카드 신규 발급자는 57명으로,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주·익산 등 인접 시군에서도 쉼터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용자는 직종별로 대리운전 종사자 40.4%, 배달·퀵서비스 종사자 35.1%로, 전체 이용자의 약 75%를 차지했다. 시간대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야간(18~24시) 이용이 4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오후(12~18시) 이용도 37%로 뒤를 이으며 두 시간대 이용이 전체의 77.1%에 달했다.

이는 대리운전과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 특성상 휴식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현재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운영 중인 쉼터 운영 시간이 실제 이용 행태에 부합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성주 시장은 “앞으로도 점검과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서주 기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실질적 정책효과 입증해

전북자치도가 고금리 속 중소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정책으로 민선8기의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3,3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강화와 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이 자금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434개 업체에 총 8,327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 예산까지 합산하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 지원 규모가 1조 1,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집행액 7,895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책자금 대출금리

를 기존 5%에서 4.35%로 낮추면서 이차보전율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실질 부담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기준 2.82%에서 2.17%로,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1.82%에서 1.17% 수준으로 각각 인하됐다. 장기화되는 고금리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 셈이다.

아울러 현대자동차 상용차 생산기지로 전주공장이 확정되면서 대규모 설비투자 and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협력업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 전략 산업 특별자금’을 한시 운영한다. 신청 기한은 올해 6월 말까지다.

이 자금은 현대자동차 LT2 프로젝트

에 참여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자체투자비의 50% 이내, 최대 50억 원까지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융자조건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도 이차보전 2.18% 적용 시 기업 부담금리는 2.17% 수준이다.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금별 1분기 접수 일정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월 12일~16일 ▲경영안정자금 1월 19일~23일 ▲벤처기업 육성자금 1월 26일~30일이다.

이상호 기자

올해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최대 70% 지원!



정읍시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정읍시는 2026년부터 기존 정부 지원금 외에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 부모가 내야 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전문 양성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로,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 서비스(기분형·종합형)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정부 지원을 받고도 부모가 추가로 지불해야 했던 비용을 정읍시가 대신 부담해 양육 가정의 실질적인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데 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이며, 대상 아동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까지다.

지원 금액은 가구의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30%를, 2자녀 이상 가정은 70%를

시에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75% 이하(가형)인 2자녀 이상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시간당 1918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575원만 내면 돼 비용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용일 전월부터 예약하는 ‘정기서비스’ 외에도,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작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한 ‘단기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함께 운영해 긴급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돌봄서비스 신청과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신청은 올해 1월부터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기존 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우 정부 지원 유형 재판정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가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임 기자

‘고흥군립하늘공원’ 오는 12일 개원한다

군민의 오랜 염원이 현실로…삶의 마지막까지 품는 복지시설, 군민 곁에 서다!



고흥군은 군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군립 장사시설인 고흥군립하늘공원을 오는 12일 정식 개원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고흥군립하늘공원은 그동안 마땅한 추모시설이 없어 관외에서 장례를 치러야 했던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례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조성된 고흥군 대표 장사복지시설이다. 고흥군은 2023년 사업 규모와 사업비를 최종 확정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2024년 3월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후 차질 없는 공정 관리와 개원 준비를 거쳐 이번 개원에 이르게 됐다.

고흥읍 호천길 245에 위치한 하늘공원에는 총 1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봉안당 16,208기, 자연장지 2,209기, 유족동산, 주차장, 휴게 쉼터 등 총 18,417기 규모의 추모·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단순한 장사시설을 넘어 고인을 기리며 가족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차분하고 품격 있는 추모·휴식 공간으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용 요금은 시설별로 봉안시설의 경우 30년 기준 관내 개인 100만 원, 부부 180만 원이며, 관외는 개인 180만 원, 부부 340만 원이다.

자연장지는 30년 기준 관내 80만 원, 관외 130만 원이다. 표지석 구입 비용은 별도이며, 무연고 봉안은 관내에 한해 가능하다. 이용을 위해서는 시설 사용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주민복지과 하늘공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고흥군은 하늘공원 사전 접수 과정에서 ‘평생 고흥군에서 거주했으나 추모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타 지역에 안치했는데, 개원 이후 고흥인 고흥으로 모시려 할 경우 관외 이용 요금을 적용하는 특은 맞지 않다’는

유가족들의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군은 이러한 군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서적 공감을 바탕으로, 시설 미개원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에 안치된 경우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이용 편의와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고흥군은 향후 내부 검토와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관내 이용 요금 적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군립하늘공원은 단순한 장사시설이 아니라 추모와 휴식을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군민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시설”이라며 “평생 고흥에서 살아온 분들이 고흥에서 편안히 기억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하늘공원 개원과 함께 올해부터 화장장려금을 30만 원으로 인상에 군민들의 장례비 부담을 한층 더 경감할 계획이다.

한편, 고흥군은 사학연금공단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및 홍보 협력 ▲지역 사회적 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이용 확대 ▲고흥군농·수산물 구매 및 소비 촉진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발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덕현 기자

순창군,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짝’

스포츠대회 53개·전지훈련 51팀 유치, 연 14만명 방문



높였다.

또한, 순창군의 스포츠마케팅은 단순히 대회를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회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스포츠 종합 지원 서비스’를 시행했다.

경기장 및 훈련 시설 특별 관리, 대회 운영 지원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며, 참가 선수와 관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순창군이 스포츠산업에 최적의 장소임을 입증했다. 최영일 군수는 “굴뚝없는 산업의 꽃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승민 기자

광주시, 창업지원 기반시설 삼각벨트 완성한다

광주시가 ‘부강한 광주’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의 시작부터 성장, 세계 진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핵심 창업 기반시설을 구축, 전 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가동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2월 본촌산단 내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와 3월 광주역 창업밸리 내 ‘스타트업 복합 허브센터’를 준공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3월 개관한 스테이지(및 고을창업스테이션)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스타트업 복합허브센터를 하나로 연결하는 ‘창업 기반시설 삼각벨트’의 완성을 의미한다. 광주시는 삼각벨트를 통해 예비창업부터 기술

실증, 시제품 제작까지 이어지는 전주 기 창업 지원 체계를 완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먼저 스테이지는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거점 인큐베이터로, 기술창업 아이디어 검증과 사업화 초기 단계를 집중 지원한다. 지난해 예비·초기 창업기업 37개사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 대·중견기업 협업 모델 개발, 해외 진출, 역량 강화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는 제조 기반 창업초기기업을 위한 제조창업 성장 거점으로 운영한다. 80개 입주공간을 갖춘 이 센터는 ▲제조 창업기업 시제품

개발·제작 지원 ▲창업기업과 제조 마스터기업 간 매칭 및 협업과제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스타트업복합허브센터는 창업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실증을 전담하는 핵심 거점으로 운영한다.

30여 개 기업이 입주해 기술 실증과 투자 유치, 기업 간 협업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성장 허브’ 기능을 수행한다. 광주시는 이들 창업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시장 진출 이전 단계의 제품과 서비스를 실증·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창업 성공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손권일 기자